사무직 여성 91년 겨울 통권 7호

<사무직여성의 월급봉투>

월급날의 허탈한 웃음

장연수 (동서증권)

따르릉 따르릉~

“ 안녕하세요? 동서증권입니다 ”로 시작되는 하루. 어김없이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어댄다. 처음부터 반말로 시작해서 반말로 끝나는 손님과 통화할 때면 정말 직장 다닐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기분이 상해버리고 만다. 아침부터 콩나물시루인 버스와 지옥철 속에서 시달리며 열심히 뛰어 온 우리를 너무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니까 손님은 왕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에 다시 또 웃을 수 있는 우리들.

용돈은 교통비 정도가 고작

우리네 여직원들의 사고를 묶어버리는 단순노동과 직장상사, 동료와의 부딪힘이 우리를 화나게 하지만 매달 25일 월급날이 있기에 우린 다시 한 번 크게 웃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그리 길지 않다. 월급의 1/3은 재형저축으로 떨어져 나간 데다, 10만 원은 적금, 또 10만 원은 집에 갖다 주고, 보험료 3만 원 내고 나면 내게 떨어지는 한 달 용돈은 고작 교통비 정도. 그것도 불가피하게 택시 몇 번 타고 나면 모자라 다시 집에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월급날,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라도 낼라 치면 진짜 내 월급이 한 달 생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친구 3명이 저녁 한 끼 먹으면 1만 원, 또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 2만 원, 도합 3만 원이다. 적어도 1인당 1만 원씩은 있어야 월급날 기분을 최소한도로 낼 수 있다. 이렇게 1달을 생활한다면 저축은 한 푼도 못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월급날 내게 배정되는 용돈으로는 매일 이런 씀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린 밝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부터 하게 되니 말이다. 돈을 모아야 시집을 갈 게 아닌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은 시집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지경이니 어쩌면 좋은가? 한 친구는 집안이 어려워 월급을 몽땅 쏟아 부어 모은 돈을 집 전세 얻는 데 다 보태고, 막상 결혼을 하려 하니 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울상만 짓고 있다. 남들은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집가도 혼숫감 적다고 남편한테 구타당하는데 우린 고작 한 달에 1, 20만 원씩 저축해서 언제 밝은 내일을 펼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은, 월급을 타면 외모 가꾸는 데 몽땅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어디 우리네 월급이 그처럼 넉넉하기나 한가? 월급날 하게 되는 돈 걱정….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메꿀 게 모자라니 원~. 내 옆자리 언니는 월급 탄 다음날 화장품 살 돈이 없다고 푸념이다. 거기다 물가는 왜 이리도 뛰기만 하는지. 월급봉투는 어느새 푼돈으로 변한다.

아무리 과소비라고 외쳐대도…

엄마 따라 시장 한 번 다녀오면 물가상승이 피부에 와 닿는다. 그 전엔 1만 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김칫거리 등 이것저것 다 사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장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처럼 쓸 돈이 항상 모자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쓰는 우리에게 과소비, 과소비 외쳐대니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 비싼 외제품일수록 품절되어서 못 판다니 한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사무직 여성들은 과연 우리가 일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받고 있는 걸까?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 남자사원과 여사원과의 엄청난 임금 차이를 비교하면 항상 희생당하는 건 우리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런 여성노동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은 하지 못할망정, 결혼한 여사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다니게 하려고 여간 노력들이 아니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 여자는 집안일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 는 둥 여러 가지 회유정책으로 고심하고 있는 사용자들. 여사원이 직장의 꽃이라고 외치시던 당신네들께서 왜 그 꽃을 함부로 짓밟고 꺾어버리려 하시나이까. 직장이 꽃인 여성노동자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아름답게 가꾸셔서 그 향기를 영원히 누려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무직여성의 월급봉투>

급여명세표에 그려지는 어머니 얼굴

임경선 (대림산업)

웅성웅성 제각기들 받아 든 명세표를 보고 한 마디씩 하느라고 난리들이다. 한 달을 월급날 하루 보고 산다고 할 만큼 급여 날이 즐거운(?) 월급쟁이들.

손바닥 만 한 급여명세서에는 나의 한 달분 노동에 대한 대가가 기록되어 있다. 총액 43만3천3백 원, 공제액 14만1천3백 원, 수령액 29만2천 원. 뿌듯한 마음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은 왜일까? 무슨 이유일까? 저축 8만 원에 잡다한 세금 회비 등 공제액만 10여만 원이니. 무슨 세금은 그렇게 꼬박꼬박 잘도 챙겨서 떨어지는지…. 휴우~ 급여명세서를 저만치 밀어놓는다. 부장님 내시는 세금 정도밖에 안 되는 내 급여.

더욱 초라해지는 월급날

어제는 셋째가 등록금 영수증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작고 나즉한 목소리로 조심조심 이야기를 꺼내는 동생에게 큰언니로서 지안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미안한지. 수령액 중에서 용돈을 떼고 나면 동생들의 등록금 20만7천5백 원도 채 되지 않는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어려워지는 우리 식구들. 엄마,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나! 새삼 나의 존재가 더욱 작아짐을 느낀다.

누가 볼세라 받자마자 확인할 틈도 없이 책상 속으로 넣어버리는 명세표. 어차피 확인할 것도 없는 작은 숫자지만 왠지 모를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없는 급여표. 그 숫자가 나의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진대 학창시절 점수 나쁜 통지표를 받은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것은 왜일까?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내 업무능력이나 일처리 정도라면 그리고 내 지능지수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형 표준형이니 말이다. 그럼 무엇일까?

부서를 한 번 휘둘러본다.

각기 자신들의 가치를 손에 쥐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무언가를 적고 있다. 저 숫자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능력 정도일까? 저기 O과장은 왜 저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을까? 책상 위에 명세표를 집어 던지는 것을 보니 무언가 굉장히 나쁜 소식이 그 속에 있는 모양이었다.

O과장은 80만 원을 웃도는 급여로 무얼 하는 걸까? 내 급여의 2배가 조금 넘는다. 식구 넷에 아이들은 아직 국민학생이니 학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테고 자동차작 한 대 있으니 유지비

도 들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겠지. 그리고….

0을 하나 더 적어보지만…

피식 웃음이 난다. 그럼 난?

동생들 등록금조차 되지 않는 급여표 위에 엄마의 피곤한 얼굴이 겹쳐진다.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연탄도 들여 놓고 저번에 터진 보일러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엄마와 나, 둘이서 벌어봐야 60만 원. 무얼로 또 이 겨울을 날까?

자꾸 높아만지는 물가, 콩나물 머릿수는 자꾸 줄어만 가고 2백50원 하던 두부도 이젠 그 두 배다. 새해 연초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설이 무성하다. 정부에선 물가를 잡는다고 임금동결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렇다고 비싸진 두부 부피가 늘까? 콩나물 머릿수가 많아질까?

자꾸 늘어나는 자가용, 언론매체에서는 국민들의 과소비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왜 아직도 정부미 밥 짓는 냄새가 날까?

다시 뒤집어 본 급여명세표에 교통비 2만 원이란 숫자가 아프게 가슴에 와 닿는다. 5급 2만 원, 4급 3만 원, 3급 4만 원.

“아니 누구는 대한민국 전철 안 타고 다녀! 왜 똑같은 전철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층이 져야 하는 거야?”

치밀어오는 분노에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적어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적혀진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무슨 멍청한 짓인지. 그래!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났으니까. 대학을 나왔어? 경험이 많어? 아니면 더 살았어?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만 그렇다고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

책상 위에 쌓인 잡무들. 해도 해도 책상 위는 언제나 너저분하다. 내 마음처럼. 언제나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엄마의 얼굴. 월급은 적지만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언제나 딸자식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엄마. 고개가 숙여진다.

정말로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큼 엄마의 생에 기쁨이 되는 장한 딸이 되어 있는 걸까? 급여명세표의 파란 줄이 엄마 얼굴 위에 그려진다.